

중추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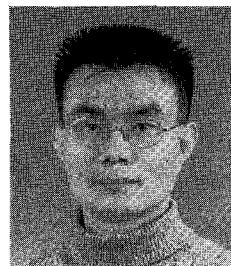
국가차원의 전문 중추농장 육성, 지원이 시급하다

채란양계업의 기본은 중추 육성부터 시작된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수의 농가들은 육성과정을 도외시 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산란계업의 육성계 사육 현실을 짚어봄으로써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국내 중추업의 현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직접 육추하는 농장과 중추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농장의 비율은 약 50:50으로 추정된다.

즉, 실수요자인 채란계 농장에서 중추를 직접 육성하는 경우와 중추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의 비율이다. 그런데 중추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 중에서도 대형 중추업자가 위탁 사육시켜 생산하는 경우와 자신이 직접 중추를 육성, 판매하는 경우의 비율도 50:50으로 추정된다.



김재현
(건업농장 대표)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소규모 하우스계사 형태의 중추생산 농장이 국내 중추 육성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만약,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중추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채란 과정에서의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시세에 따라서 중추를 육계로 출하하기도 하고 채란농장으로 판매하기도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기초적인 백신 프로그램 지식도 없이 70일간 질병관리를 운에 맡기는 농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채란업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ND 및 각종 질병의 온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인 것이다. 양계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혈청 검사 한 번 하지 않고 중추를 육성한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현실이다.

일부 대형 중추업자는 소규모 농가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위탁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들어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중추 유통업



자들도 부화장, 품종, 심하게는 중추 일령까지도 7~15일 정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계군의 질병 이력을 숨김으로써 차후 산란 과정에서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다음은 종계장의 현실을 짚어보자.

전문 중추 생산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아리 구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그 만큼 믿고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증거일 것이다.

대개의 부화장이 소규모 농장에 위탁 사육함으로써 제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종계장이 실용산란계 농장 보다도 못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산란계는 항상 질병과 생산성 저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부화장 스스로 양심을 쥐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닭 티푸스 질병 양성 반응을 보이는 병아리를 그대로 분양한다던가, 병아리 분양 후 질병 발생으로 문제 발생시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산란계 농장의 원성을 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화장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임하여 국내 산란계 농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 국내 중추업(채란업) 활성화 방안

1) 양계 전문 수의사 양성 및 연구 시설 지원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 양계 전문 수의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시설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추 때부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4~5년 전부터 전국에 퍼져있는 닭 티푸스 같은 세균성 질병이 아직도 창궐한다는 것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양계업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중추 생산부터 철저한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내 산란계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설, 인력, 장비가 부족하므로 정부는 과감한 시설 지원을 통해 국민의 훌륭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양계 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

2) 부화장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화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장이 많은 것이 국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종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채란업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종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양계협회 홈페이지나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여 부화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부화장과 양계 업자간의 신뢰를 회복시켜 양계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만 한다.

3) 전문 중추농장 육성 지원

스스로 중추를 육성하는 농장의 경우 산란계사와 중추계사가 같은 농장에 혼재되어 있

고, 부업 차원의 중추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질병 전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오염 지역에서 육성된 중추는 과도한 약품 사용과 항생제 남용 등으로 심각한 국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식품 안전성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 중추 농장을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중추가 생산되도록 하여 양계산업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4) 전문 수송 차량 지원

중추 수송 전문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노계와 중추를 번갈아가며 수송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 또한 노계 수송차량도 마찬가지이지만 차량 세차 시설도 지원하여 수송 차량에 의한 질병 유입 가능성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맷음말

국내 실용산란계 농장의 50%는 중추를 구입해야만 한다.

또 50%의 농장은 중추를 직접 육성하여 산란계사로 편입시켜야만 한다. 각각의 농장들은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경제성 있는 중추 구입과 육성이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한 대책 방안들이 속히 정책적으로 입안되어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양계**